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어린시절 살았던 옛 마을, 내가 태어난 옛집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하면 다들 놀란다. 변화가 빠른 21세기 대한민국, 부동산 광풍이 여러 차례 휩쓴 서울 도심에서 흔히 있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 옛 마을을 산책하며 그리운 얼굴들과 빛바랜 기억들을 소환하면 알 수 없이 내 안에서 인생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것이고 그 덧없는 아름다움에 기대어 한 세상을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 숨이 꽤나 가빠질 무렵 인왕산의 숲 끝자락과 같이 맞닿는 부분에 이르르면 내가 태어난 옛집이 나타난다. 인가가 사라진 숲자락에 아늑하게 들어앉은 하얀 교회가 있다. 육인동 서울교회다. 서울교회라는 정식 호칭이 있다는 것은 성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 아카시아 생울타리로 둘러싸였던 인왕산 숲속의 그 하얀 교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와이교회'였다. 어릴 때부터 하와이 교인들이 건립 자금을 보내주어 하와이교회라고 불린다는 교회 탄생 설화를 들으며 자랐다.

하와이교회

이금이 작가의 소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하와이 이민자들, 남편이 될 남자의 사진만 보고 결혼해 이국의 척박한 삶을 개척해 나갔던 '사진 신부'들의 삶을 그린다. 장정들이 하루 열 시간, 주 6일 꼬박 일해 버는 한달 월급이 17달러였다. "젠장, 조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나라도 나 있고 가족 있는 다음이야. 박용만이고 이승만이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동포 앞에서 좋은 본은 고사하고 험뜯고 싸워대는 꼬락서니 하고는. 그 종자가 그 종자지." 소설 속 청년의 냉소는 당시 이민자 사회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돈을 모아 독립운동을 위한 성금을 냈고,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은 임시정부 재정의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든든한 후원이 되었다.

하와이를 근거지로 외교 중심의 독립을 추구했던 이승만과 무장투쟁을 추구했던 박용만 사이에 어느 쪽 노선이 옳았는지 '역사-이념' 투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오늘은 하와이교회에서 느꼈던 단상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며칠 전 친구들과 산책하던 발걸음이 하와이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차담을 나누던 마을 주민들은 반가워하며 말을 붙였다. 전임 시장이 교회 건물을 사들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꾸려 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건국 업적과 하와이 교포들의 몰심양면 지원을 역사에서 조려낸 속셈이었다고, 이 곳은 하와이 교포들의 독립 정신을 전하는 공간으로 보존할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그의 열띤 호소를 들으며 나는 그가 아차하면 전임 시장을 동물로 호칭할까봐 두려웠다.

벌써 몇 대 전·현직 대통령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십이간지에 있는 동물들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영을 막론하고 멸칭으로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의논의 파트너로 삼을 생각이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한창하고 발길 닿는 이 작은 내 고향 마을에서도 역사-이념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무엇보다 씁쓸하게 다가왔다.

1928년생, 당시 고려대를 나온 드문 인텔리였고 월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한 어른은 당신이 경험한 해방 전후의 혼란기를 이렇게 요약해 들려주었다. "그때는 좌나 우나 한치 앞을 몰랐어. 각자 양심에 따라서 이념을 택했지. 북한이 저렇게 기형 국가가 될 줄을 누가 미리 알았겠어. 지금 보면 월북이 미친 일이지만, 그때는 남과 북 양쪽 다 일리가 있었어. 지금의 형편으로 그 때를 이야기하면 나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다고." 그렇다. 우리는 역사가 흐른 뒤의 일들로 그 시절을 예단하며 역사에 임박른 소리들을 보태는 중이다. 그때는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한치 앞을 몰랐고 외교전이, 무장투쟁이, 시민 불복종이, 어떤 방법이 독립에 가장 필요할지 한치 앞을 몰랐다. 각자의 방법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애썼고 목숨이 오가는 험한 길들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오늘을 살면서 목숨을 내건 독립운동의 최일선에 서셨던 분들을 잡했느니 못했느니 평가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고향 마을의 언덕을 내려오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종교칼럼

스님도 연애 상담 하나요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래 오래 만남이 이어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사랑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달라도 많이 달라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애는 짝짓기, 사랑은 정(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해요. 우선 욕망의 단계, 연애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단계지요.

두번째, 끌림의 단계. 원하는 짝을 찾다가 마침내 눈에 맞게 되면, 눈에서 불꽃이 튀는다. 흔히 눈에 콩깍지가 찌킨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 이유없이 그냥 상대방이 좋습니다. 이때가 끌림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 사람의 뇌는 도파민으로 가득찬다고 하는데. 이게 약물중독자의 뇌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중독되는 겁니다. 실연의 아픔이 큰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거죠. 하지만 이 시기가 그리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1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어찌어찌 잘 넘긴 커플들은 애착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눈에 썩인 콩깍지는 벗겨졌지만 서로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어서 같이 있으면 편한 단계지요. 이때에는 뇌에서 도파민이 아니라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서로에게 정이 드는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소유 심리가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끌림의 단계와 애착의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끌림의

단계는 연애, 애착의 단계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누면 머리 속의 많은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연애인가 사랑인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애의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항상 애착이 형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타인을 정신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더라도, 그 사람만은 내 편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확신. 이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타인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확신이 들지 않는 자체가 아직 끈끈한 정이 덜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편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지도 않겠지요.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은 사랑이나 연애와는 범주가 아예 다릅니다. 흔히 내 기준에 맞는 좋은 배우자를 고르려고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있는 배우자를 걸러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배우자는 고르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다 보면 차담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곤 한다. 젊은 시절의 나는 어른들의 충고는 귀 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남에게 스스럼없이 충고할 정도로 얼굴이 두꺼워졌다. 그 죄로 일면식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주위담지도 못할 말들을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고 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해를 거듭할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전공석화같은 인생의 무상함에 헛기증이 날 지경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관의 역할

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 그리고 과학기술시대의 '과학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계층·지역 간 과학 격차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관은 크게 유물 중심의 과학박물관과 체험 중심의 과학센터로 나뉜다. 근대적 형태의 과학관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기적 전시를 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후 오랜 세월이 걸쳐 축적한 풍부한 콜렉션을 전시하는 과학관인 과학센터가 등장했다. 이후 역사적 사료 없이도 관람객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오감을 통해 과학을 탐구할 수 있는 순수 체험형 과학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관람객이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움직여보는 체험형 전시물과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물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196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익스플로라토리움이 개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과학관인 과학센터가 등장했다. 이후 역사적 사료 없이도 관람객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오감을 통해 과학을 탐구할 수 있는 순수 체험형 과학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ICOM(국제박물관위원회)은 과학관을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표본 등을 조사·발굴·수집·보존·연구하여 공개 전시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창조적 휴양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항구적 공간과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학관의 기능과 특성을 크게 연구와 전시, 교육, 휴게, 그리고 공공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육

성과 전 국민의 과학화 추진을 시작으로 1990년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들어섰고, 2008년 수도권에 국립과천과학관, 2013년 호남권의 국립광주과학관에 이어 국립대구·부산과학관이 연이어 개관했다.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과학기술과 시민의 상호 역할을 위해 건립된 과학관들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필수적이지 대국민 최첨단에 있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의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과학관을 일상 속에서 때로는 학교처럼, 때로는 테마파크처럼, 때로는 쉼터처럼 거리감 없이 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문화가 국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초연결 시대에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4월에 개관한 인공지능관에 이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확충하고 작년에 개관한 어린이과학관의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방문객에게 늘 새로운 배움거리·볼거리·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최신 연출기법을 적극 도입한 상설전시관 리모텔링이 곧 마무리되어 선보일 준비를 마쳤고, 한기위를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10월에는 과학관 대표 과학축제 '아트사이언스페스티벌-가을항기 속으로'를 개최하는 등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인제는 과학관을 방문해 과학문화를 즐겨볼 것을 권한다.

社說

무방비로 식탁에 오르는 일본산 수산가공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후쿠시마현과 인근 7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돼 있지만 이들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은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수산물로 2차 가공한 어묵 등 수산가공품이 다섯차례에 걸쳐 3500kg이 국내에 수입됐다. 이는 정부가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7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까지 포함하면 국내에 수입된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가공품은 어묵, 젓갈, 건포포, 통조림 등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12년간 수산가공품은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로 수입됐다는 얘기가.

무엇보다도 수산가공품에 일본산이라고만 표기돼 있고 후쿠시마현이나 이바라기현 등 구체적인 생산지역이 표기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해 세습과 요오드 등 방사성검사를 하고 있지만 전수검사가 아닌 무작위로 표본만 추출해 검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 8개 현의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구체적인 생산 지역을 표기하고 방사성 검사는 무작위 표본 방식이 아닌 제한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면 최소한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리라도 철저히 해야하지 않겠는가.

광고판 전략 총장로 빈 상가 방치할건가

광주의 대표 거리인 총장로가 침체하면서 빈 상가와 건물이 불법 광고판으로 전략해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옛그제 광주시 동구 총장로 1가부터 3가까지 상가를 점검한 결과 폐업한 가게·상가 출입문과 벽면에는 공연, 문화행사, 상품 등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도 도배돼 있었다. 수개월 전 폐업한 총장로 3가의 한 옷가게 건물 통유리창에는 홍보 전단지 10여 장이 빼곡하게 붙어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전단지 중에는 광주시, 동구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자체·공공기관을 홍보하거나 행사 등을 알리는 광고물도 상당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빈 가게와 상가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보니 불법 전단지와 홍보물이 나붙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데 있다.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상권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거리미저

지저분해지면서 빈 상가에 상인들이 입주할 꺼리는 등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총장로 상인들은 "총장로가 황폐한 도심으로 변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총장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불법 홍보물 수거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 광고물 이지만 구청에서 직접 때는 데 한계가 있고 빈 상가와 가게가 사유 건물인 만큼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청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광고물 홍수는 본질적으로 총장로 상권 침체와 맞물려 있다. 총장·금남로 상가 공실률은 올해 들어 30%대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시와 동구는 총장로 등 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상의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광주 이미지를 흐리는 불법 광고물을 서둘러 제거하고 근절책을 시행해야 한다.

無等鼓

한국 설화에 대홍수 전설이 있다. 큰 물난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남녀 한 쌍이 인류의 선조가 된다는 줄거리다. 먼 옛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바다로 변했다. 하지만 산 꼭대기는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한 남매만이 표류해 겨우 도착했다. 남매는 물이 다 걷힌 뒤, 세상을 둘러 보았으나 인척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세상은 돌 밖에 없어 그대로는 사람이 씨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남매간에 혼인을 할 수도 없어 각각 마주 서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

가 곁집이아는 암뱃물을 굴리고 사내는 수뱃물을 서사시'를 비롯해 구약 뱃물과 수뱃물이 이상하게도 산 아래에서 포개져 있었다. 이에 남매는 결혼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여겨 부부의 연을 맺는다. 사람의 씨는 이 남매의 결혼으로 인해 이어졌으니, 지금 인류의 조상은 그 두 남매라는 전설이다.

그리스 신화에 흡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친 남매가 아니라 사촌 남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는 타락한 세상을 보다 못해 홍수를 일으켜 모두 없애고 새 인류를 만들

기로 결심한다. 홍수 속에 모든 생물이 몰렸지만 미리 준비한 배를 타고 파르나소산 정상에 도착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사촌 관계로 데우칼리온과 피라였다. 남편인 데우칼리온은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었다. 제우스는 이들이 평소 신에 대한 공경심이 두터웠다는 점을 높이 사 홍수를 겨우 들렸다. 이후 이들 부부는 신탁에 따라 여개 너머로 돌을 던지자 돌이 인간으로 변해 새 인류가 됐다라는 내용이다.

리비아에서 최근 대홍수로 1만여 명이 사망했다. 리비아는 선사시대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았던 인류 기원의 지역이기도 하다. 신속히 재난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대홍수 전설은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해 구약 뱃물과 수뱃물이 이상하게도 산 아래에서 포개져 있었다. 이에 남매는 결혼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여겨 부부의 연을 맺는다. 사람의 씨는 이 남매의 결혼으로 인해 이어졌으니, 지금 인류의 조상은 그 두 남매라는 전설이다.	대홍수 전설은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해 구약 뱃물과 수뱃물이 이상하게도 산 아래에서 포개져 있었다. 이에 남매는 결혼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여겨 부부의 연을 맺는다. 사람의 씨는 이 남매의 결혼으로 인해 이어졌으니, 지금 인류의 조상은 그 두 남매라는 전설이다.
--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전태호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직무대리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 변화는 기술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우리는 이런 순환을 통해 지금의 최첨단 과학기술사회에 도달했다. 이렇듯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인 과학은 왜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고 대중화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것일까.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풀이하지만 일반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은 의미하는 것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등 총체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높이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는 20세기 초까지는 주로 저명한 과학자들의 저술과 강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각종 매체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히 과학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과학 콘텐츠를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개발되어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소위 탐구체험 학습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인을 통한 정보 공급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 소비자의 관점 및 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 대중화를 통